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매년 1월 18일~25일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서 2장 2절

2022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1월 18일(화) 오후 7시, 유튜브 생중계

YouTube [youtube/6VSzjuSfhZY](https://www.youtube.com/watch?v=6VSzjuSfhZY)



기도회순서

기후위기
중동의 분쟁과
극단주의 정치적 혼란
난민 사회적 약자
팬데믹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정교회 · 한국천주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창립한 협의체로, 2002년부터 본격화된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화와 일치 증진의 성과에 힘입어, 2014년 5월 22일 창립하였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30년, 개신교 130년, 정교회 120년. 이 역사 안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일치와 협력의 경험보다는 선교 전략상의 의도적인 차별화 정책으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지내왔고, 개신교 내부에서의 많은 교파 분열은 이러한 인식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파 간의 신앙적 친교를 이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4
2022년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6
기도예식.....	8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25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26
7기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o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그리스도인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가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고자 공동으로 임명한 국제준비위원회는 현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때문에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상으로 이 자료집을 준비해야 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중동교회협의회에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주제 선정과 초안 준비를 맡겼다. 중동교회협의회가 정한 주제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요즈음,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빛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국제 보건 위기 속에서 불의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상습적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의 거대한 폭발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지역 그리스도인 일치 공동체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이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

으로 감사하며, 중동과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더 큰 일치가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살아갈 모든 이의 더 존귀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기를 기도한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Revd. Father Martin Browne, OSB - 성 베네딕도회 글렌스탈 수도원(아일랜드)

Ms. Anne-Noëlle Clément - 그리스도인 일치 단체[Unité Chrétienne(프랑스)]

Revd. Anthony Currer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바티칸)

Dr. Ani Ghazaryan Drissi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 총괄(스위스)

Revd. Dr Jochen Wagner - 독일그리스도교공의회연구회[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독일)]

Dr. Hanne Lamparter - 독일 루터교회(독일)

Sr. Leticia Candelario Lopez - 하나님 말씀 선교회(싱가포르)

Revd. Dr Odair Pedroso Mateus -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 위원장(스위스)

Revd. Father James Puglisi - 속죄의 프란치스코 형제회 일치 센터(이탈리아/미국)

Revd. Dr Mikie Roberts - 세계교회협의회 영성 생활 프로그램 총괄(스위스)

Dr. Clare Watkins - 로햄턴 대학교(영국)

중동교회협의회 참석자

Revd. Father Dr Boulos Wehbe - 안티오키아 그리스 정교회(레바논)

Revd. Dr. Rima Nasrallah - 복음주의 교회(레바논)

Revd. Father Dr. Roger Akhrass - 안티오키아 시리아 정교회(시리아)

Dr. John Daniel - 복음주의 나일 지역 총회(이집트)

Sr. Emily Tannous - 마로니타 교회(레바논)

Revd. Father Gabriel Hachem - 안티오키아의 그리스 멜키트 가톨릭교회(레바논)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서 2,2)

† 평화를 빕니다.

매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아 다양한 전통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라는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은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약자들의 인권 문제들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특히 2020년 8월 4일에 발생한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서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하였다는 점은, 중동은 물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정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일치기도주간의 주제 성구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입니다.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방에 떠오른 별을 주제로 삼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서방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지만,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동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구원이 베들레헴과 요르단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계시된 사건으로서의 ‘주님공헌대축일/주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별은 헤로데가 무고한 생명을 살해할 곳인 예루살렘의 혼란의 장소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무고한 이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표지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실현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동반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모든 이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성구를 포함한 마태오복음 2장 1절-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별빛보다 더 큰 빛이시며 모든 이를 일깨우고 성부의 영광과 그 빛의 찬란함으로 이끄는 새로운 빛이신 예수님께 모든 인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둠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신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부께 다가가는 우리의 길을 비추어 우리가 성부를 알게 되고 외아들을 내주기까지 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안에서 당시 민족들의 다양성의 상징과 동

쪽에서 빛나는 별빛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부르심의 보편성을 발견하였고,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의 일치에 바라심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인종과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표지가 되도록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동방에서 떠올랐지만, 과거 헤로데는 베들레헬과 그 온 일대의 두 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오늘날 중동에도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동에는 그 백성의 길을 함께 해 줄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베들레헬의 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보이시는 표지입니다. 이는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께 경배 드리고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따라 우리의 삶, 교회,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세주의 별이 비추는 빛을 따라 인간 존엄,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수호하는 데 헌신해야 하고, 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난민들을 환대하며, 짐을 진 이들의 짐을 덜어 주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동안, 그리스도 교회들 각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찾아나서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일치의 길을 성찰하며, 중동과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일치를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1코린 15,28) 정의와 평화의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 | |
|-------------|------------|
| 한국천주교회 | 김희중 대주교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이홍정 총무 |
| 한국정교회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 대한예수교장로회 | 류영모 총회장 |
| 기독교대한감리회 | 이철 감독회장 |
| 한국기독교장로회 | 김은경 총회장 |
| 구세군한국군국 | 장만희 사령관 |
| 대한성공회 | 이경호 의장주교 |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장미선 총회장 |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강희욱 총회장 |
| 기독교한국루터회 | 김은섭 총회장 |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
- ❖인도: 박문성 신부 (한국천주교,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 ❖반주: 조은영 선생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그 동안의 합의에 의해서

(1)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합니다.

기도회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 개신교찬송가, 혹은 가톨릭성가의 가사는 그대로 씁니다.

.....

1968년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학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공동번역위원회'가 결성되어 1971년 신약성경이, 1977년 구약성경이 완역되어 『공동번역 성서』로 출판하였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와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지체협의회 공동 문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치기도회 순서

시작 성가 - 동방의 세 박사 (가톨릭성가 487/ 개신교찬송가 116)

성가를 부르는 동안 참석자들은 행렬로 입장한다.

mf John H. Hopkins

1. 동 방 박 사 세 - 사 람 귀 한
 2. 베 들 레 하 험 임 - 금 께 황 금
 3. 거 룩 하 신 천 - 주 께 유 향
 4. 땅 에 문 히 실 - 주 께 유 약
 5. 영 화 로 운 입 - 금 님 하 늘

선 물 가 - 지 고 숲 과 산 과
 을 드 렸 으 니 영 원 도 록
 을 드 렸 으 니 영 원 도 록
 에 오 르 - 시 니 알 텔 루 리 아

ff

강 을 건 - 니 별 파 라 갔 도 다
 온 천 하 - 를 다 스 리 시 도 다
 찬 송 하 - 며 경 배 할 지 어 다
 불 위 하 - 여 돌 아 가 셧 도 다
 알 려 루 - 야 노 래 할 지 어 다 오 -

a tempo

아 름 다 운 별 이 여 찬 란

한 셋 별 이 여 새 로 나 신

예 수 께 로 인 도 하 여 갔 도 다

예식으로의 초대

인도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 중 아멘.

인도자 그리스도 안의 자매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각지의 믿는 이들과 하나되어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준비한 예식 자료를 사용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새로 나신 임금님을 뵈러 간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 특히 2절의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방에서 보인 이 별에 주목하며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물며, 모든 병든 이, 고통받는 이, 소외된 이, 난민, 쫓겨난 이를 하느님 앞에 불러 모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백성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도록 초대하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저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았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경배하고자 모여왔나이다. 오늘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며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머무시기를 청하나이다.

회 중 세계 각지에서 모여 온 저희가 남녀노소 모두 하나되어 천상의 임금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아멘

성가 - 예수 우리 왕이여 (개신교찬송가 38)

보통으로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 서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미기도와 고백

- ❖ 1. 김보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총장)
- ❖ 2. 유흥근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부장)
- ❖ 3. 김창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기도자 1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궁창에 빛을 만드셨으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거룩한 시간, 날, 해를 알리는 표지들을 마련하셨나이다. 창공을 별들로 가득 채워두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지 천상이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이 주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선포하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거스른대도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저희의 빛이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찬양 받으소서. 성자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온 인류의 빛이었나이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나이다.

회 중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기도자 2 오 주님, 성령의 힘을 통하여 저희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길을 밝히시고 거짓과 의심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만남과 화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오 주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어 이 빛을 저희 주변과 여러 교회와 다양한 문화 안에 비추도록 하시고, 유일한 참 임금이신 예수님을 증명하며 저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 중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자 3 만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저희는 자주 어둠을 찾아오나,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빛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하며 말씀드립니다.

회 중 저희가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피조물을 파괴하고 소비주의적 행동으로 그 자원들을 낭비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와 토양을 더럽혔으며 많은 종들의 멸종을 야기시켰습니다.

잠시 침묵

회 중 저희는 자매형제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희의 욕구와 욕망이, 정의를 향한 헌신보다 우선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서로간에 벽을 쌓고 다른 이들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잠시 침묵

회 중 저희는 민족, 종교,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일으킨 전쟁에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잠시 침묵

기도자 3 전능하신 하느님,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때가 차자 저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희망의 횃불로 빛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회 중 저희가 한목소리로 찬미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가 - 나의 생명 드리니 (개신교찬송가 213/ 가톨릭성가 210)

1. 나 의 생 명 드 리 니 주 여 받 아 주 셔 서
 2. 손 과 발 을 드 리 니 주 주 여 받 아 주 셔 서
 3. 나 의 의 음 성 드 리 니 주 주 여 받 아 주 셔 서
 4. 나 의 의 보 시 드 리 니 주 주 여 받 아 주 셔 서
 5. 나 의 의 시 간 드 리 니 주 주 여 받 아 주 셔 서

세 상 살 아 갈 동 안 찬 송 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일 위 위 하 하 여 여 찬 민 송 하 게 하 소 서
 주 의 의 날 나 을 리 말 씀 하 하 여 여 찬 민 송 하 게 하 소 서
 하 평 생 토 록 위 주 위 해 봉 사 하 소 서 아 멘

시편 제8편

❖박인곤 보제(한국정교회)

- 말은이 주님, 우리의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늘 위에 주님 영광 높사옵니다.
- 회 중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드는 자와 맞서는 자를 없애시려
당신은 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요새를 지으셨나이다.
- 말은이 우러러 주님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과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 회 중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말은이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 회 중 주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말은이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
- 회 중 주님, 우리의 주님.
온 땅에 주님 이름, 얼마나 크시옵니까.
- 다같이 반주에 따라 함께 찬양한다.



제1독서, 이사야서 9,1-6

❖ 한세종 사관 (구세군한국군국 인사국장)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매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열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입니다.

제2독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5,8-14

❖ 양용식 장로(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여 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데 그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복음환호송



복음, 마태복음서 2,1-12

✧나성권 사제(대한성공회 교무원 총무국장)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설교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홍정 목사(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라

인도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회 중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리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 나눔

밤하늘을 떠올리도록 걸어 둔 짙은 파란색의 천 자락을 걸어두고 그 위에 거대한 별을 달아둔다. 참석자들을 위한 종이별들을 준비하고,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나와 천 자락에 별을 달도록 한다.

인도자 별은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별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별 아래 모여 하늘에 저마다의 별을 달며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모읍니다.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삶이 찬란한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를 청합시다.

중보 기도

- ❖ 1. 최태성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영문서기)
- ❖ 2. 전수빈 청년(청년활동가)
- ❖ 3. 이순원 선생(포콜라레 난민 활동가)
- ❖ 4. 손정명 수녀(선한목자예수수녀회)
- ❖ 5. 민숙희 사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인도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 앞에서
 저희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자 1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고장에서 가져온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예식과 전통을 지닌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특히 폭력과 억압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보물들을 지켜 주소서.

회 중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자 2 주님의 유년시절은 독재자 헤로데의 명령으로 폭력과 학살로 얼룩졌습니다. 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그 여파가 체감되는 지역에 살고있는 어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들 안에 일치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연대를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소서.
 억압받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멈추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소서. 저희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것처럼, 저희가 독재와 억압의 지배에 맞서 함께 일어서도록 도와주소서.

회 중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자 3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후 성가정은 광야를 지나는 이주를 체험했고 이 집트 땅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난민과 쫓겨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향 땅을 떠난 이들을 환대할 준비가 되도록 하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전할 환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회 중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자 4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거룩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조화를 이루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이들의 길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겸손과 인내를 주소서.

회 중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자 5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증언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회 중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 동방 박사들이 거룩한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저희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아기를 바라보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함께 바칩시다.

주님의 기도

회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성가 - 주 예수 따르기로 (가톨릭성가 29, 개신교찬송가 447)



1. 주 예수 따 르 기 로 나 약 속 했 으 니 내
 2. 이 세 상 온 갖 유 혹 내 맘 을 혼 들 고 내
 3. 저 영 광 빛 나 는 곳 주 내 계 보 이 니 그



친 구 되 신 주 여 늘 함 께 하 소 서 주
 모 든 원 수 들 이 늘 피 록 히 오 니 주
 아 름 다 운 곳 을 늘 사 모 합 니 다 주



함 께 계 시 오 면 나 든 든 하 읊 고 주
 나 께 돌 아 보 면 사 내 든 방 하 읊 고 주
 에 수 섬 기 기 로 나 약 속 했 으 니 끝



나 를 이 끄 시 면 바 른 길 가 리 다
 옆 에 계 시 움 을 깨 른 달 게 하 소 서
 까 지 따 라 가 게 용 기 를 주 소 서

인사

- ❖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 ❖ 장만희 사령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국구세군군국 사령관)

파견과 축복기도

- ❖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말은이 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회 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말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맙시다.

회 중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를 비추게 하소서.

말은이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와 믿음과 사랑이 온 공동체에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회 중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 하나되게 하소서 (가톨릭성가 39장)



1. 성 - 부 여이사람들 이 아 버 지의뜻을따
 2. 성 - 부 여내게말기 신 이 사 람을지키시
 3. 성 - 부 여사람들에 게 아 버 지를증거하



라 진 리 위 해 몸 바 치 는 사
 고 나 당 신 과 하 나 이 듯 이
 며 당 신 나 를 사 랑 하 고 내



람 이 되 게 하 소 서 성 부 나 를 이 -
 사 람 들 도 모 두 가 하 나 되 게 하 -
 안 에 항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이 나 도
 읊 소 서 아 버 지 말 씀 - 은 모 두
 바 쳐 서 사 랑 하 오 리 - 니 모 두



사 도 들 을 - 세 상 에 파 견 하 읊 니 다
 진 리 이 며 - 생 명 의 말 씀 이 읊 니 다
 아 버 지 의 - 사 랑 을 알 게 하 읊 소 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기도주간의 준수를 장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 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 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 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 1965년 대한성공회 천주교 상호 방문 기도회 개최
- 1986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8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9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0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1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2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3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4년 한국기독교교회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5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6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7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정교회)
- 1998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9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설교: 천주교)
- 2002년 천주교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3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중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04년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천주교)
- 2006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7년 성공회 대전교구 청주수동성당 (설교: 천주교)
- 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보문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9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0년 천주교 부산교구 중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1년 구세군대한본영 아현교회 (설교: 천주교)
- 2012년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3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민교회 (설교: 천주교)
- 2015년 한국 천주교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주중앙교회 (설교: 천주교)
- 2017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옥수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1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9년 한국구세군 구세군영등포교회 (설교: 천주교)
- 202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21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유투브 생중계)(설교: 천주교)

정교인,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7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2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 예정)
- 수강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02-743-4471

강사 (*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중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운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장영주 사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6기 일치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그리스도인 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